

핵심주제

- 극동에 하이테크 개발 및 도입 재단 조성
- 러시아 정부, 루스키 섬 발전 컨셉 승인
-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발전에 500억 루블 투자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6월 5일, News.Mail.ru

인도, 제 3회 동방경제포럼 참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인도 상업산업부 장관 시트하마란과 면담을 가졌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다이아몬드, 석유가스화학, 광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다. 인도측은 2017동방경제포럼 참가를 위해 방문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ail.ru/politics/29976737>

2017년6월 2일, Forumvostok.ru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국경인접지역 발전 논의 예정

극동개발부 카차예프 차관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극동 국경인접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기술, 도시, 교통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특별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경인접지역 발전계획은 사회분야 정책의 우선적인 수행, 국경인접도시들의 기술, 도시, 교통 인프라 확보, 현존 사회 인프라 시설 보전과 신규 시설 건설을 포함한다.

<https://forumvostok.ru/na-vef-2017-obsudyat-prigranichnoe-sotrudnichestvo-razvitie-prigranichnyh-territorij-dalnego-vostoka>

2017년 5월 30일, 극동캐피탈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인구문제 개선 논의

제3회 동방경제포럼 전략세션 중 하나로 극동 인구문제 개선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극동개발부 카차예프 차관에 의하면 동방경제포럼에서 3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2025 극동 인구발전 계획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 인구정책 모범사례, '좋은 지역에 좋은 일' 민간사회 발전 프로젝트 대통령상 공모전 우수작품들이 논의된다.

http://dvkapital.ru/regionnow/primorskij-kraj_30.05.2017_9960_vo-vladivostoke-na-vef-2017-regiony-rasskazhut-o-svoikh-luchshikh-praktikakh-v-sfere-demografii.html

2017년 5월 23일, PrimaMedia

제 3회 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 교육 종료

동방경제포럼 업무 진행을 위해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연해주 및 기타 극동연방관구 지역들에서 선발하였다. 6월 15일까지 후보자들은 각자 다음 업무분야 배정을 받게된다: '참가자 등록', '정보안내지원소', '교통지원', '행사지원'.

<http://primamedia.ru/news/592299>

2017년 5월 18일, 극동개발부

유리 트루트네프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경제발전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016년 극동 사회경제발전 관련 업무 결과를 평가하였다. 유리 트루트네프는 극동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규정 및 법령 제정 부분에 있어 작년은 기록적인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7개 법령, 러시아 정부 15개 시행령이 도입되었다. 18개 법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다.

전권대표에 의하면 2016년에 선도개발구역 4개 조성, 72개 신규 입주기업 계약,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신규 입주기업 142개가 있었다. 한해동안 극동에 유치된 투자금은 1760억 루블이었다.

<https://minvr.ru/press-center/news/5102>

2017년 5월 15일, TASS

2017동방경제포럼 언론인 등록 개시

forumvostok.ru 사이트의 '미디어' 페이지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 취재를 원하는 언론인들의 온라인등록절차가 진행중이다. 러시아 및 외국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방경제포럼 공식 사이트를 통한 접수신청 마감일은 2017년 8월 1일이다.

<http://tass.ru/novosti-partnerov/4251833>

극동 국가정책

2017년 6월 2일, 'Interfax'

극동에 중국 투자자 지원센터 설립

올해 7월에 극동연방관구 내 중국 투자자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러측 설립자는 극동 투자 유치 및 수출 지원청, 중국측 설립자는 중국 산업 해외 발전 계획 협회이다.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지원센터는 중국 사업계와 소통하는 통일된 창구가 될것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837552&p=1>

2017년 6월 1일, News.Rambler.ru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극동 국제교통로들의 발전 논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과 헤이룽장 주지사 루하오 간의 양자 협상이 있었다. 양측은 극동 국제교통로 운영을 위한 러중 합자 운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운영회사가 양국 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실무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rambler.ru/economics/37038156-na-pmef-obsudili-razvitie-mezhdunarodnyh-transportnyh-koridorov-na-dalnem-vostoke>

2017년 5월 22일, 'Rossiskaya Gazeta'

극동에 하이테크 개발 및 도입 재단 조성

새 발전 기관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극동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해외 기술 도입, 가공성이 뛰어난 제품 생산 근대화 및 확대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극동에 혁신발전의 가속과 선진기술보급의 확대를 위한 기관이다. 재단 형성에 극동발전기금, 로스나노, RVC가 참여한다. 제 1단계 재단 예산은 50억 루블정도로 책정된다.

<https://rg.ru/2017/05/22/reg-dfo/na-dalnem-vostoke-poiavitsia-fond-razvitiia-i-vnedreniia-tehnologij.html>

2017년 5월22일, Regions.ru

극동 투자 프로젝트에 중국 공기업 유치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간 계약은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체결할 계획이다. 러측은 중국 공기업들에게 쾌적한 극동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중국 공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는 국제교통로 '프리모리에-1', '프리모리에-2'로 기대된다.

<http://regions.ru/news/2604750>

2017년 5월19일, 'Vesti'

2017년에 극동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저금리 주택대출 출시

극동 인구수 보전과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신규 저금리 주택대출이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신축아파트 구매시 연 7%이하의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외 여러 지원정책이 검토중에 있다. 예를들어 젊은 부부들에게 첫째 및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금리를 인하해 주고 셋째가 태어나면 대출금 전체를 탕감해 준다.

<http://vestiprim.ru/news/ptrnews/50137-dlya-dalnevostochnikov-poyavitsya-lgotnaya>

[ipoteka.html](#)

2017년 5월 16일, Eastrussia

러시아에 극동 투자자 지원을 위한 자동화 통합지원 시스템 가동

극동에서 현재 추진중인 600개 투자프로젝트들이 시스템에 연결되었다. 각 투자자들이 시스템에서 계정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극동 발전지원기관들인 극동개발사, 극동인적자원유치청,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과 원격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eastrussia.ru/news/v-rf-vvedena-avtomatizirovannaya-sistema-podderzhkiinvestproektov-dalnego-vostoka/>

2017년 5월 5일, TASS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예산 500억 루블 투자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 300억 루블을 투자하고 기타 출처에서 추가 200억 루블을 조달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5월 5일 2015~2017년 극동 선도개발구역 조성 업무 초기 결과 논의 회의에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밝혔다. 메드베데프 총리에 의하면 이 예산은 도로, 전력망,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된다.

<http://tass.ru/ekonomika/4234611>

극동 경제

2017년 6월 1일, RussiaToday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러시아 극동: 새로운 경제의 건설' 페널세션

러시아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민간 투자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극동의 새로운 경제조건 형성을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선도개발구역 실적을 논의하고 투자자 지원 신규정책 또한 지역 투자가치를 높여줄 인프라 발전 전망을 논의하였다.

<https://russian.rt.com/business/news/395704-pmef-ekonomika-dalniy-vostok>

2017년 5월 16일, Regnum

중국 공기업, 극동 제지공단 건설에 10억 달러 투자

ChinaChengtong 사는 제지공장을 하바롭스크 주의 아무르스크에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규모는 10억달러이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종이와 골판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셀룰로스가 생산된다. ChinaChengtong사는 원료조달 문제 해결과 물류비용 산출 및 운송가능성 검토에서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공장은 선도개발구역 내에서 활동한다.

<https://regnum.ru/news/economy/2275242.html>

2017년 5월 12일, News.mail.ru

한국 투자자, 연해주 생선가공공장에 100만 달러 투자

한국 '테크엔 트레이드'사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공장은 캄차카산 원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생산품은 한국으로 수출된다. 제 1단계에서 128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간 생산력은 명태 8000~10000톤 정도이다.

<https://www.kp.ru/daily/26674/3696847>

2017년 5월 3일, 'Komsomolskaya Pravda'

일본 투자자가 하바롭스크 공항 국내선 터미널 건설

신 여객터미널 공사는 2017년에 시작된다. 프로젝트에 Sojitz Corporation이 이끄는 일본 투자자 컨소시엄이 참여할 계획이다. 공항은 연간 300만명의 여행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프로젝트 비용은 42억 루블이다.

<https://www.kp.ru/daily/26674/3696847>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6월 2일, RIA News

러시아 정부, 루스키 섬 발전 컨셉 승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2017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2018년 조성 예정인 루스키 섬에서 8명의 투자자들이 투자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민간투자 규모는 총 500억 루블 이상이다.

발전 컨셉에 따라 극동연방대학교의 발전, 동방경제포럼 개최 목적도 포함한 컨벤션 및 전시시설이 딸린 국제협력센터건설이 계획된다. 계획에 따라 루스키섬은 하이테크 프로젝트들의 발전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화한다.

<https://ria.ru/economy/20170602/1495631530.html>

2017년 5월 5일, EastRussia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세계 최대 헬륨 물류센터 건립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인 '가스프로م 가스에네르고셋 겔리'사와 극동개발사 간 헬륨 컨테이너 서비스 물류센터 설립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로의 헬륨수출로가 확보된다.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51억 5300만 루블이다. 물류센터는 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진다. 센터 가동은 2021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https://www.eastrussia.ru/news/struktura-gazprom-gazenergoseti-planiruet-sozdat-khab-geliya-v-tor-nadezhdtnskaya>

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주최기관인 'RosCongress' 재단은 회의전시회행사 대형 조직사 입니다.

'RosCongress'재단은 회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추진을 통한 러시아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발전 기여를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행사의 콘텐츠를 담당하고 기업 및 기관들에 컨설팅, 정보 및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의 현안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분석 및 보도를 수행합니다.

오늘 재단의 연례행사 일정에는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친 행사들이며 이를 통해 세계 사업계의 리더, 전문가, 언론인, 정부관계자들을 한 플랫폼으로 연결할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논의 및 추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사회공헌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협조합니다.